

코로나19에 광주·전남 고용시장 '칼바람'

위기 경보 '심각' 격상 이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7.6배 증가 타격 큰 외식업·자영업자, 신청 절차 복잡하고 까다로워 불만도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광주·전남 지역 고용시장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지역 영세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인건비라도 아껴보기 위해 휴업·휴직에 들어가면서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을 해고하기보다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자금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고 있지만,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 탓에 일부 외식업계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18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한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13일까지 19일간 광주·전남·제주 등 호

남지역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건수는 791건에 달했다.

이는 올해 1월 1일부터 '심각' 단계 격상 이전인 지난달 23일까지 54일간 신청 건수 104건에 비해 7.6배나 증가한 것이다.

또 같은 기간 신청 근로자수도 2583명에서 7543명으로 약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여행업계를 비롯한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에 타격을 입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사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는 게 광주고용노동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위기에 처해 '고

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휴업이나 유급휴업 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1월 29일부터 매출액 15% 감소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근로자 1인당 6만6000원(월 최대 198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최근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은 '특별고용지원대상'으로 지정돼 올 9월 15일까지 휴직수당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생사 기로'에 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직원을 해고하지 않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에 매달리고 있지만, 제출서류 등 신청절차가 복잡해 외식업계의 경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휴업·휴직에 따라 고용유지 조치 계획 신고서 ▲근로자와 휴업·휴직에 대한 협의 증명서류 ▲기존 근로시간을 증명할 서류 등 증명서류가 필요하다.

공장을 비롯한 제조업과 달리 별도의 출·퇴근 명부 등을 작성하지 않는 외식업계의 특성상 '최근 6개월간 근무시간표' 등 각종 증명서류를 준비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호소다.

광주의 한 음식점 사장은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업종이 음식점 등인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하니 준비해야 할 증명서류가 많고 복잡해 우리 같은 외식업계는 퇴짜를 맞기 일쑤"라며 "규제와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정부의 발표와 달리 일선 현장에서는 변화가 없는 듯 하다"고 지적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1591.20 (-81.24)	↑ 금리(국고채 3년)	1.05 (+0.02)
↓ 코스닥	485.14 (-29.59)	↑ 환율(USD)	1245.70 (+2.20)



양동에 프리미엄 복합의료타운 '극동메디컬' 건설

극동산업개발, 지상 8층 규모 광주 서구 핵심 역세권

광주 서구 양동에 프리미엄 복합의료 종합타운 '극동메디컬'이 들어선다.

(주)극동산업개발(대표회장 한평철)은 양동시장 인근 오랫동안 방치됐던 원예협동조합(구 농산물시장)을 매입·철거한 뒤 해당 부지에 복합 메디컬 의료종합타운 '극동메디컬'을 신축한다고 18일 밝혔다.

극동메디컬은 대지면적 2902㎡(877평), 연면적 1만1689㎡(3536평)에 지하 1층-지상 8층 규모다.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2-3층은 전문병원이 분양·임대 후 입주할 예정이다. 4-8층은 현재 분양이 완료돼 현 서구청 앞 호부모사양 양병원(원장 이준행)이 이주해 입주하기로 확정됐다.

특히 극동메디컬이 들어서는 부지는 호

남 최대 재래시장인 양동시장과 도시철도가 연결되는 역세권으로, 광주 서구 핵심 상권이다. 365일 활발한 상권으로 수익 창출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

서구와 남구 접경지역으로 뒤편 반도유보라 아파트와 맞은편 쌍용아파트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인근인 북구 유동 재개발로 대규모 주택단지가 조성될 계획이다.

주변 7000여세대에 달하는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데다, 양동시장과 돌고개역 등 이른바 '더블 역세권'으로 다 양한 대중교통·도로망도 구축돼 교통여건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극동산업개발 측은 "지역 핵심 상권과 함께 대로변 스트리트 상가로 특화설계돼 풍부한 내방객 수요의 복합명품의료타운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극동메디컬 분양임대 문의 062-521-3600, (주)극동산업개발 062-525-3607.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은행 코로나 성금 광주시에 1억 전달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18일 광주시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성금 1억 원을 전달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달식에는 이용섭 광주시장과 박흥석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회장이 참석했다. 성금은 코로나19 여파로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취약계층에 전달된다.

광주은행은 앞서 광주·전남도에 마스크 3만개씩 전달하고 목포·순천·여수·나주시에 후원금 각 1000만원을 전했다. 19일에는 전남도에 1억원을, 대구·경북지역에는 5000만원의 성금을 기탁할 계획이다.

광주은행은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속한 대출지원을 위해 145개 모든 영업점에 전담창구를 열어 보증·약정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송종욱(왼쪽) 광주은행장은 18일 광주시청에서 이용섭(가운데) 광주시장과 박흥석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긴급구호를 위한 성금 1억원을 전달했다. <광주은행 제공>

유동성 막힌 중기,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가능

산자부, 보증 시행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출채권을 바로 현금화할 수 있게 해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산자부 추정 사업은 ▲무역보험기금 출연(500억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 지원(730억원) ▲지역활력프로젝트(120억원) ▲전력효율향상사업 내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1500억원)이다.

우선 산업부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수출채권을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보증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수출채권조기현금화는 수입자의 파산

과 상관없이 대금을 회수할 수 있고, 결제가 지연돼도 은행에서 채권을 즉시 현금화해 다음 수출에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으며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국내 경제에 활력을 주기 위해 지난해(300억원)보다 5배 증액한 1500억원을 올해 사업에 배정했다.

환급 대상 품목은 7개에서 10개, 1인당

한도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했다.

소비자가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상 품목 중 시장에서 출시된 최고효율등급 제품을 구매할 경우 개인별 30만원 한도 내에서 대상 제품 구매비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는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요금 긴급 지원액 730억원도 추경으로 편성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연합뉴스

북미 최대 전시회서 1200만달러 수출 계약

한국광산업진흥회

한국광산업진흥회는 최근 북미 최대 광통신 산업 전시회에 참여해 1200만 달러의 수출 계약 등 성과를 거뒀다고 18일 밝혔다.

진흥회는 지난 10일부터 12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OFC 2020'에서 우수 광융합산업체를 중심으로 12개사 공동관을 구성, 3개사의 개별부스를 지원해 지역 광융합 통신 분야 마케팅활동을 지원하고 기술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코로나 19 영향으로 북미 대기업 및 중국 기업이 대거 불참하고 참가객도 줄었지만, 한국 제품의 높은 인지도와 사전에 계획한 바이어와 상담으로 우려했던 것보다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고 진흥회는 설명했다. 이번 전시회에서 참여기업들은 140여건의 바이어와의 상담 성과를 이뤘고, 국내에서의 지속적인 대응을 통해 1215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진흥회는 매년 광 ICT, LED 융합조명, 광소재·부품 등 분야별 유망 국제전시회에 6개 이상 공동관을 구성해 해외 수출상담회도 4개 이상 지원 중이다.

미국 현지에서 기업과 상담했던 바이어를 올 8월 서울 COEX에서 개최될 '2020 국제 광융합비즈니스페어'와 11월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광융합 산업 로드쇼'에 초청해 성과를 확산할 계획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